

#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간의 관계

## Father's Parenting Behavior, Son's Emotional Regulation as Related to Son's Aggression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석사 박혜경

교수 박성연

Dept. of Consumer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

Master : Park, Hye Kyong

Prof. : Park, Seong Yeon

###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 among Father's parenting behavior, Son's emotional regulation and Aggress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91 male-students of 5th, 6th-grade living in Seoul and Kyoung-ki province. The data were collected via questionnaires.

As results, Father's rewarding attitude toward Son's aggression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Son's reactive aggression. And Father's coercive parenting was the most predictable variable for Son's relational aggression. It is suggested that father's parenting behavior is very important antecedent variables to predict children aggression as well as emotional regulation.

**주제어(Key Words):** 아버지 양육행동(father's Parenting), 정서조절(emotional regulation), 공격성(aggression)

#### I. 서론

공격성은 사회 부적응적인 문제와 폭력을 유발시키는 심리적 특성(Loeber & Stouthamer-Loeber,

1998)으로 본능이나 기질 등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세기동안 공격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관심은 주로 본능위주의 동물행태학적 관점에 있었다(Lorens,

1966; McCord, McCord & Howard, 1961). 그러나 사회의 산업화, 정보화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아동의 공격적인 행동은 경제적 빈곤, 사회구조적 원인, 공격적 모델을 제공해 주는 TV, 영화, 만화, 신문 등의 대중매체의 영향을 받는다(안지영, 1992; Eron, 1982; Huesmann & Miller, 1994)는 관점에서 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 행동의 발달과정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아동이 성장하면서 최초로 접하는 교육의 장인 가정환경,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뒷받침되고 있다. 즉, 부모의 신체적 별, 거부적인 태도, 애정결핍, 무관심, 자녀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Eron, 1963; Sears, 1965) 및 권위주의적, 비 일관적인 태도(Martin, 1976)는 자녀의 높은 공격성과 관련된다. 반사회적 행동 발달에 관한 이론으로 유명한 Patterson(1986)과 Patterson, Capaldi와 Bank(1991)는 강압적 가족관계가 역동적으로 반복됨으로써 공격성이 촉진되며, 이런 가족 분위기에서 양육된 아동이 사춘기에 반사회적 행동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부모의 처벌적 또는 냉담한 양육행동이나 비일관적, 강압적인 부모-자녀관계 질 외에도 부모는 아동의 공격적인 행동을 보상하거나 격려함으로써(Rubin, Stewart & Chen, 1995) 공격적인 행동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부모의 권위적이며, 강압적인 양육행동과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보상적 양육행동은 아동에게 좌절감, 또는 분노를 유발하며, 공격성 모델로서 작용하기도 하고(윤완기, 1994; Bandura, 1977), 아동의 자아 가치감을 저하시킴으로써 세상일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에 대해 비우호적 또는 적대적인 공격성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로 발달하는 시기인 청소년 초기의 아동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서 부모-자녀간의 대화가 어렵고 세대간의 의견차이가 생기게 된다(Olson, 1983). 이러한 대립과 갈등을 경험하면서도 아동은 부모의 이해와 지도를 동시에 필요로 하므로 아동의 원만한 성장과 사회적응을 위해서 부모와 자녀간의 적

절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학령기 자녀의 사회적 행동 특성, 적응 능력 및 교우관계와 정적으로 관련(서명성, 1998; 이연숙, 1991)되며,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폐쇄적일 경우에 청소년의 비행이 심해진다는 보고(민하영, 1991)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한편, 과거에는 공격성에 관한 연구가 신체적 공격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Crick과 Grotpeter(1995)이 여러 공격성의 유형을 통합, 정리하여 공격성을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으로 유형화하여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외현적 공격성이란 개인이 공격유발 대상에게 직접 행하는 신체적인 공격과 언어적인 공격을 포함한 개념이며, 외현적 공격성은 다시 Dodge와 Coie(1987)가 주장한 주도적 공격성과 반응적 공격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반면에 관계적 공격성은 집단의 힘이나 압력을 이용하여 한 개인을 위협하거나 소외, 배제하려는 집단적인 공격의 형태이다. 외국에서는 가족 관계와 아동의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연구(Crick, 1995; Crick & Grotpeter, 1995; Galen & Underwood, 1997)가 보고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관한 연구 보고가 거의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을 Dodge와 Coie(1987), Crick과 Grotpeter(1995)의 주도적(proactive), 반응적(reactive), 관계적(relational) 공격성으로 재구성하여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공격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공격성은 개인의 내·외적인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발달하는 심리적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외적요소인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상대적으로 아동 개인내 변인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 아동 개인 변인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연구로 아동의 초기 생물학적 요인, 건강상태 그리고 기질의 요인을 포함시킨 Lambert(1988)는 아동자체의 특성이 가족변인이나 사회-환경변인보다도 공격적인 품행장애를 더 많이 예언한다고 하였다. 또한 국내 연구에서도 까다로운 기질이 품행장애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갖는다고 보고(김희조, 1994)하였고, 윤명렬(1995) 역시 아동의 기질과 성격

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내외 연구들은 공격성을 품행장애 속에 포함하여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아동의 사회 적응 능력이나 정서조절 능력을 고려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정서조절 능력은 자신의 감정상태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를 조절할 줄 알고, 상대방의 사고·감정·의도 등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기초적 수준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에 필수적인 요인이다(Parker & Asher, 1987). 한편 아동은 학령기에 걸쳐 감정을 억제할 줄 알고, 다양하고 분화된 표현으로 문제 상황에서도 정서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정서조절 능력에 따라 또래와의 관계도 달라지며, 공격성과도 관계가 매우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간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 결과들은 없지만 기질의 한 부분으로 정서조절을 다루고 있는 연구들에서 공격성과 관련된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주의력 및 통제 능력이 낮고 정서의 강도가 높은 아동은 분노와 좌절을 공격적인 행동이나 감정 발산과 같이 겉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Block, & Block, 1980; Fabes & Eisenberg, 1992), 정서의 강도가 높은 아동은 기능적인 정서조절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며, 공격성이나 반사회적 행동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해석된다. 또한 Goodman과 Brogan, Lynch, Fielding(1993)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조절 능력이 낮은 아동은 사려성이 결핍되어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며 정서적,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나아가서는 폭력과 일탈을 일삼는 반사회적 행동과도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정서조절 역시 부모의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아동은 부모의 긍정적 정서 표현을 모델링하거나, 부모에게서 정서를 표현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긍정적 태도를 도출해내고, 기쁨이 충만한 상호작용으로 아동은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덜 느끼게 된다.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해 감정을 무시하고, 감정 표현 방식을 경멸하면서 아동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훈육을 강요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정서조절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Goleman, 1995). 부모의 강압적이며 권위적인 양육행동과 같은 통제적 태도는 아동의 정서적 해독능력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고(Hunt, 1985),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부모의 자녀는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하지 못하여 공격적인 특성이 있다(이원영, 1983)고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냉정하고 무반응적이고 비일관적 일수록 아동들은 분노를 많이 표현하고, 순종적이지 않으며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Gottman & Katz, 1989). McFadyen-Ketchum, Bates, Dodge와 Petit(1996)도 어머니의 강압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행동은 유치원 아동의 바람직하지 않은 정서조절 전략을 예측한다고 하였는데 최근에 국내에서도 같은 결과를 임희수(2000)의 연구 결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정서조절에 있어서 부모의 양육행동의 중요성과 나아가 아동의 정서발달과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정서조절능력은 학령기가 되면서 표현적 사고가 섬세화되고, 정서 처리능력이 발달되기 때문에 증가한다. 그러나 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동은 반응적 공격성을 높게 나타내고 또한 계속된 학대는 역기능적 정서 조절 능력을 예견하게 한다. 이것으로 보면 부모의 관심 부족이나 결핍된 양육행동으로 형성된 역기능적 정서조절 능력을 갖고 있는 아동은 다른 사람에 의해 유발된 공격적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자 반응적 공격성을 나타내게 된다(Shields & Cicchetti, 1998). 이와 비슷한 연구로 Swartz와 Proctor(2000)는 또래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폭력과 괴롭힘을 받은 아동은 사회정보처리 능력이 왜곡되어 공격적인 상황에서 정서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이러한 결과 또래 관계에서 반응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고 보고하면서, 아동의 사회 적응적인 측면에서의 정서조절 능력의 매개적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공격성 발달에서의 초기 환경적 영향인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더불어 아동의 개인 내적 요인인 정서조절 능력이 학령기 남자 아동의 주도적,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과 어떤

한 관계를 갖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부모의 양육행동의 중요성 및 아동의 정서 발달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실제적 측면에서는 아동의 공격성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을 촉진하고, 부모들을 위한 자녀의 효율적 양육 행동 및 아동의 정서조절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연구문제 1.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은 남아의 공격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남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에 위치하는 3개교 11개 반의 초등학교 5, 6학년 남아 191명이다. 본 연구 대상자를 초등학교 5, 6학년 남아로 한 것은 아동 발달상 12세 전후가 공격성이 비교적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며 (Tremblay, 2000), 일반적으로 여아보다는 남아에게서 공격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Crick & Grotpeter, 1995; Maccoby & Jacklin, 1980)을 근거로 하였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 도구는 아버지의 양육행동, 남아의 공격성 및 정서조절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들로 구성된다.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을 평가하고, 남아

는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자신의 공격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연구대상 남아가 속한 학교의 담당 교사(전체 11명)가 남아의 공격성을 평가하였다.

#### 1) 아버지의 양육행동 척도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4개 요인으로 구성된 양육행동 척도와 의사소통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구성을 위해서 기존의 연구(박성연, 1989)를 참고로 애정·합리적, 권위·비일관적,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문항을 선택하였으며, 요인분석결과 권위·비일관적 양육행동은 강압적 양육행동으로 설명이 되어 요인 명칭은 바뀌었다. 반면 아동의 공격성 행동에 대한 보상적 양육행동 문항은 본 연구자가 개발(예: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잘했다고 칭찬을 한다.', '왜 맞고 들어왔냐고 하면서 핀잔을 주거나 때려주고 와라.' 등)하고, 아동학을 전공하는 석·박사를 대상으로 아버지의 보상적 양육행동에 대한 안면타당도를 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5개 문항이 선정되었다.

양육행동 척도는 총 3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요인분석 결과, 어느 요인으로도 포함되지 않은 4개의 문항이 제외되어서 30개의 문항만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모든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로 평가하는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각 양육행동 및 개방적 의사소통에 대한 성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위의 양육행동 4개 요인 외에 아버지-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 척도(오미경, 1997) 7개 문항을 양육행동 척도에 첨가하였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52 ~ .91로 나타났다.

#### 2) 남아의 공격성 척도

남아의 공격성 척도는 Dodge와 Coie(1987)가 주장한 주도적 공격성 및 반응적 공격성과 Crick과 Grotpeter(1995)의 공격성 척도에 기초한 관계적 공격성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장지순(1999)의 공격성 검사 문항과 Schwartz, Chang과 Farver(2000)이 개발한 공격성 척도를 참고로 하여

총 23문항으로 된 질문지를 구성하였으며 남아가 직접 자기보고를 하도록 하였다. 한편 교사보고는 Schwartz와 동료들(2000)의 척도를 본 연구자가 번안, 수정한 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남아용 공격성 척도는 요인분석결과, 원래 요인대로 3개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12개 문항만을 선택하여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한편, 교사 보고 공격성 경우는 요인 분석 결과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고 한 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자기보고 척도와 교사보고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항상 그렇다(5점)'의 5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공격성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공격성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66~.94 이었다.

### 3) 남아의 정서조절 척도

남아의 정서조절 척도는 Shields와 Cicchetti(1998)가 개발한 Emotion Regulation Checklist(ERC)를 1요인 부적절함/불안정한 정서(Lability/Negativity)와 2요인 정서조절(Emotion Regulation)로 본 연구자가 번안, 수정하여 설문 문항들을 완성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기존 연구(Shields et al., 1998)에서의 요인들과 일치한 2개의 요인에 23개 문항이 추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1요인과 2요인은 각각 역기능적 정서조절 및 기능적 정서조절로 명명되었으며 1요인에는 9문항, 2요인에는 4문항으로 총 13문항이 포함되었다. 기능적 정서조절은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워 하면 같은 마음이 되어 걱정스러워 한다', '또래가 말을 걸면 미소나 웃음을 짓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등의 문항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역기능적 정서조절은 '친구들이 자기를 놀리거나, 대들거나, 간섭하면 부정적인 감정(분노, 고통, 좌절, 근심)을 표현한다', '다른 사람이 속상해 하는 것을 보며 좋아한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역기능적, 기능적 정서조절 능력의 신뢰도는 각각 .73, .69였다.

###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연구 대상 남아의 연령에 부합되는 45가족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 문항을 확정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2000년 12월에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어머니용 질문지는 학생편으로 어머니에게 전달된 후 응답된 질문지를 일주일 후 회수하였다. 배부된 아동용, 어머니용, 교사용 260부의 질문지 가운데 207부가 수거(회수율: 80%) 되었으나, 조사대상자 중 한가지가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한 응답이 있는 16부를 제외하고 총 191사례를 본 연구문제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빈도, 백분율, 요인분석,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서는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한 평가자간의 평가기준의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어머니와 남아 각각의 응답 점수를 Z 점수로 변환하고 합산하여 결과분석에 이용하였으며, 교사보고의 경우도 교사간의 평가 기준으로 인한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Z 점수를 이용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간의 관계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1>에서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남아의 각각의 공격성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행동 중 공격성에 대한 보상적 양육행동이 남아의 반응적 공격성( $r=.29, p<.001$ )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내었고, 강압적 양육행동은 남아의 관계적 공격성( $r=.20, p<.01$ )과 유의한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아버지가 아동의 공격적 행동에 대하여 보상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아동은 유발된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보복적으로 공격을

〈표 1〉 아버지의 양육행동,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간의 상관관계와 각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N=191

변인들		1	2	3	4	5	6	7	8	9	10	11
아버지의 양육행동	1. 애정·합리적	—										
	2. 강압적	-.37***	—									
	3. 허용·방임적	-.35***	.17**	—								
	4. 공격성 보상적	-.12	.39***	.04	—							
	5. 개방적 의사소통	.73***	-.34***	-.17**	-.10	—						
정서조절 능력	6. 역기능적 정서조절	-.09	.20**	.14*	.10	-.11	—					
	7. 기능적 정서조절	.31***	-.26***	-.15*	-.00	.28***	-.15*	—				
공격성	8. 주도적 공격성	-.12	.09	.10	.03	-.04	.17**	.00	—			
	9. 반응적 공격성	-.05	.04	-.04	.29***	.06	.08	-.04	.27***	—		
	10. 관계적 공격성	-.10	.20**	.07	.13*	-.09	.12*	-.05	.53***	.37***	—	
	11. 교사평가 공격성	.02	.08	-.06	.08	-.04	.21**	-.02	.11	.16*	.07	—
평균(M)		4.6E-16	3.4E-16	4.7E-16	4.3E-04	1.7E-03	1.73	3.03	2.05	3.26	2.07	1.85E-03
표준편차(SD)		.81	.81	.78	.84	.82	.30	.59	.73	.89	.63	1.01

\*p<.05, \*\*p<.01, \*\*\*p<.001

가하는 방식인 반응적 공격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아버지가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아동은 의도적으로 관계를 조종하여 다른 아동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관계적 공격성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의 경우는 아동의 각 공격성 유형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1〉에서 남아의 역기능적 정서조절은 남아가 보고한 주도적 공격성( $r=.17, p<.01$ ) 및 관계적 공격성( $r=.12, p<.05$ )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교사 평가 공격성( $r=.21, p<.01$ )과도 유의한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역기능적으로 정서조절을 하는 남아는 자기보고 주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을 더 많이 나타내고, 교사평가 공격성도 더 높았다. 그러나 기능적 정서조절은 남아의 자기보고 및 교사보고 공격성과는 유의한 상관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 2.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간의 관계

한편,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선 〈표 1〉에서 아버지의 양육행동 중 강압적 양육행동( $r=.20, p<.01$ )과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r=.14, p<.05$ )이 아동의 역기능적 정서조절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기능적 정서조절과 아버지 양육행동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애정·합리적 양육행동( $r=.31, p<.001$ )과 개방적 의사소통( $r=.28, p<.001$ )과는 유의한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고, 강압적 양육행동( $r=-.26, p<.001$ )과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r=-.15, p<.05$ )으로 유의한 부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아버지가 강압적이고,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아동은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하는 경향이 있고, 아버지가 애정·합리적 양육행동을 보이며, 아버지와 아들이 개방적 의사소통을 할수록 아동은 기능적 정서조절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남아의 공격성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의 상대적 영향력

남아의 공격성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2〉에서 남아의 반응적 공격성에 유

<표 2> 남아의 공격성에 대한 아버지 양육행동,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의 종다회귀 분석 (n=185)

	남아의 공격성			
	남 아 보 고			교사보고
	주도적 공격성	반응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	공격성
	$\beta$	$\beta$	$\beta$	$\beta$
아버지의 양육행동				
애정·합리적	-.17	-.22*	-.02	.02
강압적	.06	-.10	.15	.03
허용·방임적	.00	-.12	.02	-.14
공격적 행동 보상	-.04	.31***	.05	.03
개방적 의사소통	.11	.23*	-.12	-.03
남아의 정서조절능력				
역기능적	.18*	.09	.08	.24**
기능적	.06	-.08	.00	-.01
R <sup>2</sup>	.06	.13	.05	.07
F	1.48	3.69**	1.37	2.02

\*p<.05, \*\*p<.01, \*\*\*p<.001, df=7, 178

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아버지의 공격적 행동에 대한 보상적 양육행동( $\beta=.31, p<.001$ )과 애정·합리적 양육행동( $\beta=-.22, p<.05$ ), 개방적 의사소통( $\beta=.23, p<.05$ )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남아의 주도적 공격성에는 남아의 역기능적 정서조절( $\beta=.18, p<.05$ )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교사가 평가한 남아의 공격성에서도 남아의 역기능적 정서조절( $\beta=.24, p<.01$ )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 변인들이 남아의 주도적, 반응적 공격성을 설명하는 정도는 각각, 6%, 13%였으며, 교사가 평가한 남아의 공격성에 대해서는 7% 정도의 설명력이 있었다.

### VI. 논 의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남아의 공격성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남학생 191명과 그 학생들의 어머니와 담임교사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연구 문제별로 주

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 1.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간의 관계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남아의 공격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 남아의 반응적 공격성은 보상적 양육행동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공격적인 행동을 하였을 때 그러한 행동을 보상하거나 격려함으로써 아동의 공격적인 행동을 증가시킨다고 한 Rubin과 동료들(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남아의 공격성 중에서 반응적 공격성이 아버지의 보상적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한 불쾌한 행동에 대해 보복적인 행동을 하도록 사회화된 경우 더 두드러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Olweus(1980)는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방식 중에 아동의 공격성 행동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변인은 공격성을 어느 정도 허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았는데, 본 연구에서 허용에 대한 결과가 안 나온 것은 부모의 일반적인 허용을 다루었기 때문으로, 공격성에 대한 허용을 연구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관계적 공격성의 경우, 아버지의 강압적인 양육행동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가 애정을 주지 않고, 강압적이며 권위적인 행동을 보였을 경우, 아동의 공격성이 높아졌다는 연구결과(McFadyen-Ketchum et al, 1996)와 일치한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아동의 관계적 공격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김민정(2000)연구를 지지한다. 김민정의 연구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경험과 표현을 제한하고, 무력하게 하며, 조종하는 행동으로 본 연구의 강압적 양육행동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또한 Baumrind(1967)와 Eron(1982)이 주장한 것처럼 냉정하고 거부적인 부모는 권위 중심의 훈육방법을 일관성 없게 사용하며, 이러한 부모의 태도는 공격적인 행동의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서적인 욕구를 좌절시켜서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맺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그런 양육을 받고 자란 아동은 또래 집단 속에 속하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관계의 조정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관계적 공격성의 성향을 나타내게 된다고 해석된다.

교사는 아동의 일상생활을 지켜볼 수 있는 사람으로 교사 보고 공격성 측정 방법은 아동의 행동을 평가하는 객관성이 있는 평가로 인정 받고 있고 (Miller, 1972), Crick(1995)의 외현화 및 관계적 공격성에 있어서도 교사보고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학교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요즘, 남학생의 공격성은 아동 집단 내에서 관계적 공격성, 집단적인 신체적 공격 등으로 행해지고 있어, 이들 공격 행위들은 교사의 시계 밖에서 이루어지며, 공격의 피해자는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집단적인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침묵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교사들의 눈에 포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교사 평가 공격성이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인 것은 교사보고의 경우 남아의 공격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역기능적 정서조절은 자신이 보고한 주도

적 공격성 및 관계적 공격성과 관계가 있고, 교사가 보고한 공격성보다도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능적 정서조절은 자기보고 및 교사 보고 공격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분노 또는 공격적인 행동 유발 상황에서 정서를 조절 못하는 남아는 주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을 더 많이 나타냈으며, 교사 평가에서도 더 높은 공격성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정서의 강도가 높은 아동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지배적인 아동은 감정을 발산하거나 공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 Eisenberg 와 Fabes(1994)의 연구결과를 지지해주는 것이다. 또한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한 아동은 공격성이나 반사회적 행동 등과 관계가 있다고한 연구결과(Block, & Block, 1980)와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고 혼란스러울 때 스스로를 진정시킬 줄 아는 아동은 분노유발 상황에서 공격성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연구결과(Gottmans & Katz, 1989)와 맥을 같이 한다.

Crick과 Grotpeter(199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관계적 공격성을 보이는 아동들은 정서적으로 고독감과 우울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본 연구 결과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어 진다. 즉, 사회적 관계망 확대 시기인 청소년 초기 아동의 고독감과 우울감은 정서 상태를 불안정하게 하고, 이러한 아동은 또래 집단 내에서 공격적인 행동이 유발될 경우 정서를 기능적으로, 또는 바람직하게 조절하지 못하여 또래간 우정에 손상을 입히는 관계적 공격성향을 더 높게 나타낼 것이다.

더불어 남아의 각각의 공격성간의 상관 양상을 살펴보면, 주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간의 상관이 높게 나타남을 볼 수가 있다. 즉 공격성이 외적 강화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어났는가,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의해 유발되었는가에 의해 나눈 주도적 공격성과 반응적 공격성 중 주도적 공격성이 사회조직이나 또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관계적 공격성과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사람에게 의해 유발된 공격적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자 반응적 공격성향을 보이는 아동보다는, 자신의

의도로 먼저 다른 사람의 신체적 혹은 심리적 손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아동이 또래 집단이나 사회적 관계에서도 먼저 주도적으로 의도적인 관계의 조정이나 소속감을 손상시키는 행동과 같은 공격성을 유도해 간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 2.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간의 관계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역기능적 정서조절 능력은 아버지의 강압적 양육행동 및 허용·방임적 양육행동과는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기능적 정서조절 능력은 아버지의 애정·합리적 양육행동 및 개방적 의사소통과는 정적인 관계를 그리고 강압적 양육행동과 허용·방임적 양육행동과는 부적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권위적이며, 강압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이나 통제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결국 아버지의 강압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에게 정서적 안정주지 못하고 분노와 슬픔 등 부정적인 정서 상태뿐 아니라 부모의 통제에 반발하여 공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Davies & Cummings, 1994)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부모 중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 부정적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공격적 표현이나 낮은 정서조절 능력간의 관계를 보고한 연구들(Eisenberg, Fabes, Shepard, Guthrie, Murphy, & Reiser, 1999; Gottman & Katz, 1989; McFadyen-Ketchum et al, 1996)에서도 본 연구와 일치한 결과를 보였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국내에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를 살펴본 임희수(2000)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고하였다. 어머니가 합리적인 지도와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할수록 아동은 문제 중심적 대처 및 지지추구의 정서조절 방식을 더 많이 사용

하고, 반면에 어머니가 과보호적인 양육행동과 지시/통제적인 양육행동을 할수록 아동은 감정발산이나 공격적 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 중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아버지의 바람직한 양육행동이 청소년기를 접하는 아동의 사회적 관계형성에 있어서 필수적인 정서조절 능력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 3.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남아의 정서조절과 공격성간의 상대적 영향력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남아의 공격성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남아가 평가한 자신의 주도적 공격성과 교사가 평가한 공격성의 경우는 남아의 역기능적 정서조절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남아의 반응적 공격성은 아버지의 애정·합리적 양육행동, 보상적 양육행동과 개방적 의사소통과 같은 양육행동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남아의 개인 내적인 측면인 역기능적인 정서조절 능력이 주도적 공격성과 교사 평가 남아의 공격성에 더 중요한 영향력을 시사하였다. 반면에, 반응적 공격성은 남아의 사회 환경적 측면인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에 근거하여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척도의 타당성 문제가 제기된다. 본 연구는 정서조절 척도(Shields & Cicchetti, 1998)를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정서조절 문항에 대한 응답은 마음의 상태와 표현방법 및 전략을 다루는 것이므로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알맞은 어휘를 우리나라의 상황에 어울리게 조정된 척도 개발이 요청된다.

둘째, 연구결과에 있어 평가자로 인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하여 어머니와 남아가 평가하였고,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은 어머니가 평가하였으며, 공격성의 경우 남아

자신이 공격성을 평가하였다. 자기 보고의 경우는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평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머니의 평가일 경우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남아의 정서조절을 잘 알고 있기는 하나 객관성의 결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보다 더 객관적인 자료 수집을 위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의 보고와 아동의 보고를 병행하거나 자연관찰 혹은 행동관찰과 같은 다른 방법들을 통해 이와 같은 단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남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봄으로써 아동의 개인 내적인 측면과 사회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상호작용적 접근을 하였다. 또한 남아와 아버지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른 국내 연구들과는 달리 공격성의 유형을 주도적, 반응적 및 관계적 공격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또한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을 부모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공격성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사회적 적응을 위한 정서발달 측면의 중요성을 일깨운데 있다.

## ■ 참고문헌

- 김민정 (2000).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희조(1994).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우울증상, 부부관계 만족도, 양육스트레스가 품행장애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주(1997). 아버지 자녀양육 참여도 및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하영(1991).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연(1989).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개발에 관한 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 151-165
- 서명성(1998).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지영(1992). 아동의 공격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미경(1997). 감각추구성향과 사회화 요인이 남녀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명렬(1995).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 및 성격 특성: 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완기(1994). 부모의 체벌과 아동의 공격성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연숙(1991). 가족체계 및 어머니-자녀 의사소통과 청소년 적응의 관계.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희수(2000).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지순(1999).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과의 관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혜선(1999). 아버지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사회성숙도 및 사회문제 해결전략.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ndura, A.(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aumrind, D. (1967). Child ca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 43-88.
-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of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Andrew Collins(Eds.),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 13, 39-101.
- Crick, N. R. (1995). Relational aggression: The role of

- intent attributions, feelings of distress, and provocation type. *Development and Psychology*, 7, 313-322.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Davie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Dodge, K. & Coie, J. (1987).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958-966.
- Eisenberg, N. & Fabes, R. A. (1994).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temperament and anger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40, 138-156.
- Eisenberg, N., Fabes, R. A., Shepard, S. A., Guthrie, I. K., Murphy, B. C., & Reiser, M. (1999). Parental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Longitudinal relations to quality of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70(2), 513-534.
- Eron, L. D. (1963). Social class parental punishment for aggression and child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 Eron, L. D. (1982). Parent-child interaction, television violence, and aggression of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37, 197-211.
- Fabes, R. A. & Eisenberg, N. (1992). Young children's coping with interpersonal anger. *Child Development*, 63, 116-128.
- Galen, B. R. & Underwood, M. K. (1997). A developmental investigation of social aggression amo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3, 589-600.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Bantam Books.
- Goodman, S. H., Brogan, D., Lynch, M. E., & Fielding, B. (1993).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 in children of depressed mothers. *Child development*, 64, 516-531.
- Gottman, J. M. & Katz L. F. (1989). Effects of marital discord on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 and health.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73-381.
- Huesmann, L. R. & Miller, L. S. (1994). Long-term effects of repeated exposure to media violence in childhood. In L. R. Huesmann (Ed.), *Aggressive behavior: Current perspectives* (pp. 153-186). New York: Plenum.
- Kagan, J. & Moss, H. A. (1962). *Birth to maturity: A study in psychological Development*. New York: John Wiley.
- Lamb, M. E. (1981). Fathers and child develop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M. 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Wiley.
- Lambert, N. M. (1988). Adolescent outcomes for hyperactive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43, 786-799.
- Loeber, R. & Stouthamer-Loeber, M. (1998). Development of juvenile aggression and violence. Some common misconceptions and controversies. *American Psychologist*, 53, 242-259.
- Lorenz, K. Z. (1966). *On aggression*. New York: Harcourt Brace Javanovich.
- Maccoby, E. E. & Jacklin, C. N. (1980).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 A rejoinder and reprise. *Child Development*, 51, 964-980.
- McFadyen-Ketchum, S. A., Bates, J. E., Dodge, K. A., & Petit, G. S. (1996). Patterns of change in early childhood aggressive-disruptive behavior: Gender differences in predictions from early coercive and affectionate mother-child interactions. *Child development*, 67, 2417-2433.
- Miller, L. C. (1972). Social behavior check list: An

- inventory of deviant behavior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8, 134-144.
- Olweus, D. (1980). Familial and temperamental determinants of aggressive behavior in adolescent boys: A caus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6, 644-660.
- Parke, R. D. (1989). 좋은 아빠: 아버지의 자녀교육= The fathers(김성봉 역). 서울: 샘터사.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Patterson, G.R., Capaldi, D., & Bank, L. (1991). An early starter model for predicting delinquency. In D.J. Pepler & K.H. Rubin (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pp. 139-168). Hillsdale, NJ: Erlbaum.
- Richards, M. H., Gitelson, I. B., Peterson, A. C., & Hurtig, A. L. (1991). Adolescent personality in girls and boys: The role of mothers and father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5, 65-81.
- Rubin, K., Stewart, S., & Chen, X. (1995). Parents of aggressive and withdrawn children. In M.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 1. NJ: LEA, pp. 255-284.
- Schwartz, D., Chang, L., & Farver, J. (2000). Correlates of victimization in Chinese children's peer groups. Paper presented at ISSBD XIV Meeting in Beijing.
- Schwartz, D., Proctor, L. J. (2000). Community violence exposure as a predictor of aggression and peer victimization. Paper presented at ISSBD XIV Meeting in Beijing.
- Sears, R. R. (1965). Patterns of child rearing, *The child Psychology*.
- Shield, A. & Cicchetti, D. (1998). Reactive aggression among maltreated children: The contributions of attention and emotion dysregula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7, 381-395.
- Tremblay, R.(2000).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r during childhood: What have we learned in the past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2), 129-141.